제주발전연구 제20호
2016. 12. pp. 193~218.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 고찰*

The Baby Boomers' Volunteering in Jeju: Facts and Activation Directions

강 세 현**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Ⅲ. 연구방법
Ⅳ.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특성과 사회 참여 실태
Ⅴ.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 국문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사회참여 실태 파악과 그에 기초하여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주지역의 1955년부터 1963년

*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2016. 6. 30)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문헌연구법이고, 분석에 사용한 주된 문서자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통계자료다. 연구 내용은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특성과 사회참여 실태,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는 생계유지를 걱정하지 않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윤택한 경제상황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자원봉사 영역으로 이끌려면 일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단체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고, 참여하는 단체 중에는 친목 및 사교단체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단체활동 특성과 자원봉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향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용,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단체활동과 자원봉사의 연계, 재능나눔과 프로보노의 장려, 사회공헌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연계,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조직 여건 조성이다.

핵심어: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 사회참여, 사회공헌, 재능나눔

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고령자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추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1]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 연구는 주제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여러 분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귀중한 인적 자본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재능을 실천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논문 및 보고서로는 다음의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희선 외(2012); 이현기(2013); 김지훈·강욱모·문수열(2013); 김미령(2014); 장승옥(2014); 강철희·황지민·이경혜(2015).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재취업, 창업, 연금 생활,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2가지 이상을 병행하여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은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에게 상실된 지위와 역할을 보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말하자면 자원봉사활동은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나눔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베이비부머들은 새로운 역할 수행을 통해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사회참여 실태 파악과 그에 기초해서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란 무엇인가?

둘째,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셋째,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Ⅱ.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베이비 붐 세대란 특정 기간에 출산율의 급등과 출생아 수의 증가로 발생한 인구폭발 세대를 말한다(김미령 외, 2015: 21).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Baby Boomer)’라는 사회적 용어의 기원이 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시작해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7,600만 명의 출생 코호트를 지칭한다(Barker, 1995: 31). 베이비붐이 2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베이비부머를 하나의 코호트로 다루어 왔다. 비슷한 베이비붐이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일어났다. 캐나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에서 최고점의 출산율은 미국보다 높았다. 그런

데도 ‘베이비붐’ 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의 현상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시기 구분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 논의에 적용하여 왔다. 현재 정부의 고령자 정책에서도 이 시기의 출생자를 베이비부머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한 베이비붐 정의 기준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를 1차 베이비붐 시기로 규정하고, 이후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또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를 2차 베이비붐 시기로 구분하는 논의가 있다. 셋째,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간을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여 총 인구의 34%(1,65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인구사회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30년대 6.0명을 상회하였다가 1940년대와 1950년대 초 사회적 혼란과 한국전쟁 등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격히 높아진다.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6.1로 정점에 이르며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1971년에는 합계출산율은 4.7명으로 낮아졌지만 출생아 수는 103만 명으로 이전 시기보다 더 많았다. 베이비붐이 출산율의 급등에 따라 출생아 수가 급증한 특정 시기를 일컫는다면 서구 사회에서는 출산율의 급등과 출생아 수의 급증이 동일하여 베이비붐 시기를 정하는 데 혼란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최고인 시기와 출생아 수가 최고로 급증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베이비붐 시기를 하나로 정하는 데 이론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55년부터 1960년대 초반과 1971년을 정점으로 1974년까지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급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변화에 의한 사회적 영향과 대응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은 두 시기 모두를 중요하게 고려해 볼만 하다(김미령 외, 2015: 31). 그렇지만 우선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58%를 차지하는 695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김미혜·정순돌, 2015: 13). 세대는 공동 경험의 대리지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특정 세대의 경험 공유는 사회적·역사적인 함의를 내포한다(박재흥, 2003: 18). 나아가 세대 변수는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처럼 격동기와 전환기일수록 계급, 계층, 성, 지역보다 더 강력한 사회학적 설명력을 지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완상, 1992: 143).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 몸으로 겪어온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유년기에 절대빈곤의 시대를 지나왔고, 10대와 20대였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야 했다. 또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매 단계마다 격심한 내부적 경쟁을 경험해야 했으며, 다수는 여전히 충분히 못 배운 것을 후회하고 있기도 하다. 1980년대에 사회에 진출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넥타이 부대로 민주화에 참여하지만 성장의 경제적 열매와 민주화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안정적 중산층을 꿈꾸었으나 이들의 열망은 외부적 요인인 외환위기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60대 말 이후의 경제적 풍요를 준비한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방하남 외, 2010: 1-3). 그리고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인구 비중이 특히 높은 386세대의 선두주자인 1960년생들이 60세가 되는 2020년이면 퇴직인구가 한 해에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요즘 한국 경제와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없이 장수를 맞이한 1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편집부, 2015: 19-28).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주지역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현재 사회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하는 사항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먼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사회참여 실태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어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전략, 제도, 정책, 지원체계 등의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은 문헌연구법이다. 문헌연구법이란 연구자가 탐구해 보고 싶은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서들을 그냥 참고만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관심 있는 문제의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에 대한 이론적 검토 또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하는 실질적 연구방법이다(김경동·이온죽, 1989: 308).

문서자료의 종류는 원초적 문서, 2차적 문서, 개인문서, 공식문서, 통계자료, 대중통신매체자료 등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문서자료는 통계자료다. 통계자료는 사회현상 연구에 적합한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수집·정리·조직화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 인구센서스 자료를 필두로 인구동태통계, 보험통계, 노동과 임금 통계, 산업과 금융통계, 물가자료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여러 사회조사연구에 도움을 준다(김경동·이온죽, 1989: 314). 이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특성과 사회참여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Ⅳ.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특성과 사회참여 실태

1.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1) 인구 구성

〈표 1〉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구성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전체(내국인)		베이비부머		전체(내국인)	베이비부머
전국	47,991	(100.0)	6,950	(14.5)	100.0	100.0
서울	9,631	(100.0)	1,399	(14.5)	20.1	20.1
부산	3,393	(100.0)	557	(16.4)	7.1	8.0
대구	2,432	(100.0)	370	(15.2)	5.1	5.3
인천	2,632	(100.0)	404	(15.4)	5.5	5.8
광주	1,466	(100.0)	194	(13.3)	3.1	2.8
대전	1,490	(100.0)	211	(14.2)	3.1	3.0
울산	1,072	(100.0)	170	(15.9)	2.2	2.4
경기	11,196	(100.0)	1,569	(14.0)	23.3	22.6
강원	1,464	(100.0)	222	(15.2)	3.0	3.2
충북	1,496	(100.0)	213	(14.2)	3.1	3.1
충남	2,000	(100.0)	263	(13.1)	4.2	3.8
전북	1,766	(100.0)	243	(13.7)	3.7	3.5
전남	1,729	(100.0)	239	(13.8)	3.6	3.4
경북	2,575	(100.0)	369	(14.3)	5.4	5.3
경남	3,120	(100.0)	456	(14.6)	6.5	6.6
제주	528	(100.0)	71	(13.5)	1.1	1.0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가 157만 명(2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0만 명(20.1%), 부산 56만 명(8.0%), 경남 46만 명(6.6%) 순이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로 보면 부산이 16.4%로 가장 높고, 울산 15.9%, 인천 15.4% 순이다.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는 7만 1천 명으로 총 인구 52만 8천 명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전국 평균 14.5%에 못 미치고 있으며, 연령 구성비는 7만 1천 명 중에 48세가 12.7%로 가장 많고, 50세 12.3%, 49세 12.0%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만 6천 명(50.5%), 여성이 3만 5천 명(49.5%)이다.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중 5만 2천 명(73.8%)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1만 9천 명(26.2%)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승한·김기홍, 40).

2) 경제활동 참가율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의 경제활동인구는 71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83.6%이다. 이는 전국 베이비붐 세대(75.9%)보다 높은 편이며, 제주지역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8.0%)보다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 (2014년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전체	42,513	26,536	15,977	62.4
	50-59세	7,874	5,979	1,896	75.9
제주	전체	475	323	152	68.0
	50-59세	84	71	14	83.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5).

3) 가구 월평균 소득

〈표 3〉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연령	사례수	100만 원미만	100-3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700 만원 미만	700 만원 이상	계
전체	3,000	16.1	21.4	22.9	15.5	11.5	5.3	2.7	4.6	100.0
15-19세	3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0-29세	83	17.7	30.9	32.9	8.6	5.0	5.0	0.0	0.0	100.0
30-39세	327	3.1	19.7	31.8	18.9	11.4	5.0	3.8	6.4	100.0
40-49세	625	4.1	15.5	23.9	21.8	17.1	9.2	2.0	6.4	100.0
50-59세	624	8.0	19.0	21.9	18.1	16.4	5.8	5.4	5.3	100.0
60세 이상	1,338	36.9	27.7	17.4	8.0	4.3	2.1	1.1	2.5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 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 21.9%, '100-200만원 미만' 19.0%, '300-400만원 미만' 18.1%, '400-500만원 미만' 16.4%, '100만원 미만' 8.0%, '500-600만원 미만' 5.8%, '600-700만원 미만' 5.4%, '700만원 이상' 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인 경우가 40.9%를 차지하고 있다.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 중 평생교육 경험이 '있다' 는 응답 비율은 14.5%이며, 이는 60세 이상 연령층보다는 높으나 49세 이하의 연령층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표 4〉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단위: %)

연령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5,965	15.8	84.2	100.0
15-19세	348	19.7	80.3	100.0
20-29세	477	17.7	82.3	100.0
30-39세	830	16.6	83.4	100.0
40-49세	1,202	20.0	80.0	100.0
50-59세	1,081	14.5	85.5	100.0
60세 이상	2,027	9.6	90.4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5) 노후생활비 준비 여부

〈표 5〉 연령별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 (단위: %)

연령	사례수	준비하고(되어) 있다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계
전체	5,965	57.8	42.2	100.0
15-19세	348	4.0	96.0	100.0
20-29세	477	26.4	73.6	100.0
30-39세	830	65.9	34.1	100.0
40-49세	1,202	74.4	25.6	100.0
50-59세	1,081	73.7	26.3	100.0
60세 이상	2,027	61.2	38.8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 중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3.7%로 40-49세 연령층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60세 이상의 연령층과 30-39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6)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표 6〉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1순위) (단위: %)

연령	사례수	현재하고 있는일을 계속해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공적 연금	개인 연금	부동산 운용	자녀에게 도움 받음	퇴직금	주식 채권 등	노령 연금	계
전체	3,540	35.6	28.5	23.8	4.9	1.2	1.2	1.2	0.3	0.0	100.0
15-19세	8	6.6	61.4	14.8	17.2	0.0	0.0	0.0	0.0	0.0	100.0
20-29세	144	33.2	46.5	11.7	5.1	0.0	2.2	0.4	0.9	0.0	100.0
30-39세	512	31.8	33.3	21.9	7.1	4.4	0.4	0.3	0.8	0.0	100.0
40-49세	888	36.0	27.1	22.4	6.1	5.6	0.3	2.1	0.3	0.0	100.0
50-59세	788	43.1	22.9	25.3	3.9	2.6	0.5	1.6	0.3	0.0	100.0
60세 이상	1,200	32.1	26.0	28.9	2.2	6.5	3.5	0.8	0.0	0.1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가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1순위로 응답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43.1%,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25.3%,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22.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중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나. 건강 특성

1) 건강 상태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 중 건강 상태가 '좋다' 는 응답 비율은 34.4%, '보통' 46.9%, '나쁘다' 18.6%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81.3%가 자신의 건상 상태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체로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비붐 세대(50-59세)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은 3.35 점으로 6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고, 39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연령별 건강 상태 (단위: %, 점)

연령	사례수	나쁘다	보통	좋다	5점 평균
전체	5,965	17.8	42.1	40.2	3.26
15-19세	348	4.3	33.9	61.9	3.72
20-29세	477	5.6	37.2	57.2	3.65
30-39세	830	8.8	42.0	49.3	3.47
40-49세	1,202	9.7	50.2	40.1	3.35
50-59세	1.081	18.6	46.9	34.4	3.17
60세 이상	2,027	44.7	36.1	19.2	2.6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2) 운동 여부

〈표 8〉 연령별 운동 여부 (단위: %)

연령	사례수	하고 있음	전혀 하고 있지 않음	계
전체	5,965	59.2	40.8	100.0
15-19세	348	61.1	38.9	100.0
20-29세	477	58.3	41.7	100.0
30-39세	830	54.0	46.0	100.0
40-49세	1,202	66.2	33.8	100.0
50-59세	1,081	67.8	32.2	100.0
60세 이상	2,027	48.7	51.3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 중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7.8%로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 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457). 이는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3) 질환 여부

제주지역 베비비붐 세대(50-59세) 중 1년 동안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7%이다. 이는 60세 이상의 연령층(75.1%)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편이고, 49세 이하의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표 9〉 연령별 질환 여부 (단위: %)

연령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5,965	39.4	60.6	100.0
15-19세	348	18.4	81.6	100.0
20-29세	477	19.8	80.2	100.0
30-39세	830	20.3	79.7	100.0
40-49세	1,202	30.9	69.1	100.0
50-59세	1,081	48.7	51.3	100.0
60세 이상	2,027	75.1	24.9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다. 문화여가활동 특성

1) 문화 활동

〈표 10〉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연령	사례수	전시회		박물관		공연장		영화		스포츠경기	
		관람	비 관람	관람	비 관람	관람	비 관람	관람	비 관람	관람	비 관람
전체	5,965	24.2	75.8	26.3	73.7	25.4	74.6	56.7	43.3	14.8	85.2
15-19세	348	28.8	71.2	34.1	65.9	34.9	65.1	88.2	11.8	20.6	79.4
20-29세	477	35.0	65.0	29.4	70.6	39.1	60.9	83.6	16.4	22.2	77.8
30-39세	830	32.7	76.3	37.7	62.3	29.4	70.6	74.8	25.2	19.1	80.9
40-49세	1,202	29.1	70.9	32.3	67.7	30.0	70.0	69.0	31.0	17.9	82.1
50-59세	1,081	19.4	80.6	19.8	80.2	22.2	77.8	43.8	56.2	11.3	88.7
60세 이상	2,027	8.2	91.8	12.0	88.0	8.5	91.5	12.6	87.4	4.5	95.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의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영화 관람’ 43.8%, ‘공연장 관람’ 22.2%, ‘박물관 관람’ 19.8%, ‘전시회 관람’ 19.4%, ‘스포츠 경기 관람’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모든 항목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 비율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49세 이하의 연령층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2) 여가 활용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의 여가 활용 1순위를 살펴보면, ‘TV 및 DVD 시청’ 48.7%, ‘휴식’ 13.6%, ‘취미, 오락’ 12.9%, ‘가사일’ 7.6%, ‘종교활동’ 5.1%, ‘스포츠

관람,참여' 5.0%, '사교 관련 일' 2.9%, '자기계발' 2.7%, '봉사활동' 1.1%, '문화예술 관람,참여' 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봉사활동' 항목에서 연령층별 차이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표 11〉 연령별 여가 활용(1순위) (단위: %)

연령	사례수	TV 및 DVD 시청	휴식	취미오락	가사일	사교 관련 일	스포츠관람, 참여	종교활동	자기계발	문화예술 관람, 참여	봉사활동	계
전체	5,965	44.1	15.8	15.4	7.8	5.3	4.1	2.9	2.6	1.6	0.5	100.0
15-19세	348	30.3	12.4	24.4	3.0	17.0	5.1	1.6	5.3	0.4	0.5	100.0
20-29세	477	34.5	17.7	21.7	3.4	8.6	4.0	1.9	3.2	4.8	0.2	100.0
30-39세	830	32.4	16.3	20.3	12.4	6.0	3.5	2.1	3.4	3.3	0.3	100.0
40-49세	1,202	37.4	20.5	15.2	10.9	3.6	6.1	2.7	2.3	1.1	0.3	100.0
50-59세	1,081	48.7	13.6	12.9	7.6	2.9	5.0	5.1	2.7	0.4	1.1	100.0
60세 이상	2,027	67.1	12.6	6.8	5.8	2.1	1.6	2.8	0.6	0.1	0.5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2. 사회참여 실태

가. 사회단체 참여여부 및 참여단체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 중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39.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사회단체 참여 여부 (단위: %)

연령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5,965	28.4	71.6	100.0
15-19세	348	9.6	90.4	100.0
20-29세	477	16.7	83.3	100.0
30-39세	830	28.1	71.9	100.0
40-49세	1,202	30.5	69.5	100.0
50-59세	1,081	39.6	60.4	100.0
60세 이상	2,027	31.2	68.8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가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살펴보면,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72.9%,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27.9%, '종교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 24.0%,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22.7%,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대표회 등)' 18.2%, '학술단체' 2.3%, '정치단체'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참여단체 (단위: %)

연령	사례수	친목 및 사교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종교 단체	지역 사회 모임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공공 기관
전체	1,643	67.6	21.8	19.6	18.0	14.2	3.7	1.8	1.5	0.1
15-19세	34	19.2	25.3	41.4	6.3	3.8	13.5	4.1	0.0	0.0
20-29세	75	60.4	7.6	21.5	15.3	2.7	7.5	0.0	1.6	0.0
30-39세	209	68.3	28.4	18.6	12.4	8.2	3.1	2.3	1.8	0.3
40-49세	363	68.8	24,7	21.6	16.0	13.2	5.1	4.1	1.1	0.0
50-59세	412	72.9	27.9	22.7	24.0	18.2	2.3	1.1	1.8	0.0
60세 이상	550	68.3	12.1	11.8	19.9	20.0	2.0	0.4	1.5	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14.5%, '환경보전,범죄예방 관련' 12.1%,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6.5%,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5.8%, '자녀교육 관련' 3.6%,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전,범죄예방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항목에서는 전 연령층의 참여율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자녀교육 관련' 항목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환경보전,범죄예방 관련' 봉사활동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단위: %)

연령	사례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자녀교육 관련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전체	5,965	15.7	84.3	8.6	91.4	4.7	95.3
15-19세	348	46.8	53.2	9.3	90.7	2.6	97.4
20-29세	477	17.0	83.0	5.0	95.0	3.0	97.0
30-39세	830	14.3	85.7	8.7	91.3	9.6	90.4
40-49세	1,202	15.6	84.4	9.1	90.9	13.0	87.0
50-59세	1,081	14.5	85.5	12.1	87.9	3.6	96.4
60세 이상	2,027	5.4	94.6	7.1	92.9	1.2	98.8

연령	사례수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전체	5,965	4.7	95.3	2.8	97.2	4.0	96.0
15-19세	348	6.4	93.6	1.6	98.4	2.0	98.0
20-29세	477	6.9	93.1	2.7	97.3	5.0	95.0
30-39세	830	4.9	95.1	5.1	94.9	5.7	94.3
40-49세	1,202	4.6	95.4	2.6	97.4	3.1	96.9
50-59세	1,081	5.8	94.2	3.1	96.9	6.5	93.5
60세 이상	2,027	1.7	98.3	1.4	98.6	1.6	98.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

Ⅴ.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

1.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용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적 욕구나 현실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축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배 노인세대보다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의나 공익을 강조하지 말고 그들의 욕구, 즉 성취감, 전문성, 흥미, 신축적 시간계획 선호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미령 외, 2015: 148).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지역의 현재 퇴직하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유형은 '행정서비스 돕는 일' 13.0%, '어린이 안전 지킴이' 11.9%, '적십자 활동' 10.9%, '올레길 및 관광안내' 10.9%, '마을 및 문화해설' 9.6%, '노인 돌보기' 9.6%, '큰 행사 및 축제 도우미' 7.3%, '교통정리' 6.7%, '어린이 환자 교육' 5.4%, '산불방지' 4.1%,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 3.9%, '외국어 통역' 3.6%, '기타'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승한·김기홍, 2013: 87).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 후 가장 선호하는 자원봉사활동 유형은 '행정서비스 돕는 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조직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83.6%)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작든 크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 재직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은 은퇴 후의 자원봉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자원

봉사는 개인 단위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은퇴하고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봉사자를 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손유미, 2012: 181-193).

기업 자원봉사란 회사가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며,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임직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된 몫을 담당하는 즉 기업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활동이다.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배경에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경영 이념에 따라 기업 역시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준수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기업 자원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다각도로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직원들도 만족하고, 실제로 지역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참여자 각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기업과 비영리단체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업 내부의 지부와 지사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고, 기업들끼리도 상호보완적 기능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강세현, 200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표창하는 방안도 기업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는 그 내용을 보강하면서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사회단체활동과 자원봉사의 연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단체 참여 활동을 자원봉사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가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39.6%로 다른 연령

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회단체 유형은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72.9%,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27.9%, '종교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 24.0%,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22.7%,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대표회 등)' 18.2%, '학술단체' 2.3%, '정치단체' 1.8% 순이다.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가 베이비부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로 조사되고 있는데, 친목 및 사교단체들 중에도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므로 친목 및 사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 전략을 찾아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단체의 핵심 역량 리스트를 조사하여 공유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경험을 제안하고 활동을 지원·촉진하며 이를 지속화는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테면 마을 산악회의 장애아동 동반산행, 베이비붐 세대 동문회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중년 친목모임의 사람책 프로젝트 등 좋은 사례를 적극 조직하고 발굴하며 확산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권미영, 2016: 70). 이처럼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면 그들이 생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4. 재능나눔과 프로보노의 장려

베이비붐 세대의 재능나눔 또는 프로보노(Pro Bono)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선배 세대인 노인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넓은 사회적 연결망, 높은 문화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김미령 외, 2015: 147). 제주지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문화예술 관람 활동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 이런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매우 귀중한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2) 건강상태는 자원봉사 지속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정광중·황석규·강준혁, 2010: 182).

할 것이다.

재능나눔은 기능 공유 운동(skill sharing), 기능 기반 자원봉사(skill-based volunteering)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재능나눔은 개인을 돕는 멘토링, 집짓기, 스포츠 코칭 같은 일종의 숙련 기능의 활용에서 법률, 의료, 컨설팅, 디자인 같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봉사하는 것,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의 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여하는 일까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기에는 기업체들이 봉사 활동 효율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단순한 노력 봉사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능에 기반한 봉사 활동이 두드러지면 실제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재능나눔은 비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누구나 자신의 특수한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기술 기능 같은 것도 나누는 봉사를 말한다(김경동, 2012: 224).

우리나라에서는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프로보노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보노는 일반적 재능나눔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원봉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로보노의 어원은 '공공선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직역하면 사회공헌 활동의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프로보노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사가 이쿠마, 2012: 38).

사가 이쿠마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의 프로보노가 가능한 분야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인쇄물의 개선, 정책을 소개하는 팸플릿이나 지역 대표 산업의 브랜드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활용을 주제로 한 마케팅 조사, 운영 개선 제안,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지역 상점가의 손님을 늘리는 활동, 관광협회의 경영 전략 수립, 행정기관의 전략과 계획의 수정과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사가 미쿠마, 2012: 189-191).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라는 용어가 프로보노의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2008년 7월 24일, 전문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켰다(강세현, 2008: 9).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전문자원봉사단의 회원을 양적으

로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문자원봉사인력을 민간 자원봉사 수요처에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정기관과 도서관, 박물관, 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사회공헌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연계

사회공헌 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직면할 경우다. 베이비붐 세대의 우수한 인적 자본과 높은 사회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수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퇴직하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에 예상되는 가장 힘든 사항은 '경제적 생활 유지' 53.5%, '여유로운 시간 보내기' 17.3%, '일자리 구하기' 14.0%, '취미 생활이 없이 많은 시간 보내기' 8.1%, '직장 동료 이외에 대인관계 맺기' 4.1%, '사회생활과의 격리' 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승한·김기홍, 2013: 92). 이런 조사결과는 제주지역 베이비부머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경제 생활 및 생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2014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50-59세)가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1순위로 응답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43.1%,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25.3%,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22.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또는 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공헌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원봉사는 행정자치부가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즉 동일한 대상이 유사

한 일을 하더라도 한 쪽은 유급 일자리, 다른 한쪽은 무급의 자원봉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보다는 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가 될 수도 있다(손유미, 2012: 192). 따라서 정부의 사회공헌 일자리 정책과 자원봉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진 주체 및 자원봉사에 관한 기준과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계는 생계형 베이비부머들을 자원봉사로 유인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자원봉사는 사회공헌형뿐만 아니라 생계형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우영화, 2012: 201-203).

6.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조직 여건 조성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려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베이비부머와 수요처를 적절히 연결시키는 조직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의 중요한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원천적인 자원의 한계 때문에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퇴직자와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하는 비영리단체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비영리단체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이수 후에는 상담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이경희, 2012: 195-200). 자원봉사 선진국에는 희망제작소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희망제작소가 유일한 형편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사회공헌 일자리의 세계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 퇴직자와 수요처를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를 찾아내서 자원봉사 수요처와 연결하려는 전략과 지원체계를 깊이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원유미, 2012: 207).

Ⅵ. 결 론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들 중 자원봉사와 연관성이 있는 주요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인 경우가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1순위로 응답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들이 생계유지를 걱정하지 않고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만큼 윤택한 상황에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한 이후에야 자원봉사에 참여할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이비붐 세대들을 자원봉사 영역으로 이끌려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문화여가활동 특성들 중 '봉사활동' 항목에서 연령층별 차이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리고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 중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39.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으며,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종류로는 '친목 및 사교단체'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용 방법과 사회단체 활동 특성을 자원봉사활동과 전략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서 발견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용,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단체활동과 자원봉사의 연계, 재능나눔과 프로보노의 장려, 사회공헌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연계,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조직 여건 조성이다.

[참고문헌]

강세현(2008),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정기포럼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pp.5-16.

강철희·황지민·이경혜(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행동에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이전 세대 및 이후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3권, pp.41-71.

고승한·김기홍(2013),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고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권미영(2016), “토론문,” 『제주지역 베비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pp.69-71.

김경동(2012), 『자발적 복지사회: 미래지향적 자원봉사와 나눔의 사회학』, 아르케.

김경동·이온죽(1989), 『사회조사연구방법-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김미령(2014),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활동 특성 및 참여동기가 자원봉사 역할정체성 및 자원봉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64호, pp.79-103.

김미령 외(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삶의 질』, 학지사.

김미혜·정순돌(2015),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학지사.

김지훈·강욱모·문수열(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 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9권 제3호, pp.25-50.

박재흥(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집 3호, pp.1-23.

방하남 외(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사가 이쿠마(2012), 『프로보노: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진일보한 기부 방식』, 임태형 옮김, 에이지이십일.

손유미(2012),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2012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pp.181-193.

원유미(2012),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2012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pp.205-207.

우영화(2012),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2012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pp.201-203.

이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사례: 이것이 성공요인이다,” 『2012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료집』,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pp.195-200.

이현기(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 의사의 영향요인: 노인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pp.227-256.

장승옥(2014),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사회과학논총』 제33집 2호, 계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pp.61-77.

정광중·황석규·강준혁(2010), “제주지역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33집, 제주학회, pp.181-219.

정희선 외(2012), 『베이비부머 재능나눔 프로그램 모델개발 연구』,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사문화.

제주특별자치도(2014), 『2014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편집부(2015), 『베이비붐 세대 나의 길은?』, 도서출판LINE.

한완상(1992), 『한국현실 한국사회학』, 범우사.

Barker, Robert L.(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3rd Edition), Washington, DC: NASW Press.